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생물자원사업부문, “PRODUCE 103” 조직문화혁신 워크숍 개최

내년 목표달성 결의...임직원 단합의 시간 마련해

CJ제일제당 생물자원사업부문(대표 정근상, 이하 CJ)은 지난 20일 수원에서 부문 전 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PRODUCE 103’이라는 슬로건 아래, 생물자원사업부문 103% 목표 달성과 임직원간의 단합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CJ연구소 블로섬파크에서 1부 세미나 및 회의 발표 시간을 갖고, 이어서 광고산을 등산하며 힘찬 각오를 다졌다.



생물자원사업부문 정근상 대표는 “부문 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한 이번 워크숍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직의 단합을 통해 다시 한번 힘찬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고 말했다. CJ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

카길애그리퓨리나 김해공장 식품안전에서 앞서나가

HACCP 정기 심사 5년 연속 무결함 인증

지난 5월 10일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이보균) 김해공장이 2016년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 적용 사료공장 정기 심사에서 김해공장이 5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충식 김해공장 공장장은 “김해공장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HACCP 활동을 진행한 것이 지난 5년간 HACCP 무결함 인증을 받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안전한 사료 공급을 통해 양축 농가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길애그리퓨리나 김해공장은 이번 HACCP 5년 연속 무결함 인증을 계기로 업계에 사료 안전 마인드를 확산시켜 사료 제조 및 유통 체인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경감하여 안전 사료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선진

글로벌시장에 대한 ‘상생’ 실현하는 2016 선진 플랜트 이노베이션 미팅 개최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은 ‘2016 선진 플랜트 이노베이션 미팅(2016 SunJin Plant Innovation Meeting)’을 지난 17일(화)부터 4일간 선진 군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선진 해외법인의 현지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단기 연수 과정이다. 선진 이범권 총괄사장은 “이번 미팅은 선진의 뛰어난 기술 역량을 세계로 전파할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진은 한국 축산기술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진은 작년에 이어 국내 농축산 기업의 아세안 시장 신규 진출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아세안 농업(축산) 포럼(ASEAN AGRICULTURE FORUM)을 개최하는 등 국내 축산업계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 중이다. ㉞